제9장 몸을 단속하라

도 입

부모와 자식 또는 부부 사이에서 가끔 서운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서로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렇다. 성격이 예민하고 성실한 사람이면 혹 가능하겠지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상대의 마음을 보통사람은 알기 어렵다. 아무리 상대를 존중하고 사랑하더라도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여야 그 마음이 전달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마음속으로 수양을 쌓고 훌륭한 덕이 있다 하더라도 드러난 말과 행동이 예법에 맞지 않고 천박하다면, 제대로 자기 몸을 닦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몸을 닦는 일이란 마음과 몸이 함께 하는 것이지 따로 놀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논리적으로 마음과 몸을 구분시킬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일이다. 그러니 부부나 부모자식처럼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든 올바르게 표현해야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마음을 바르게 한 정심(正心) 공부를 실제 몸과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는데, 몸을 단속하는 일을 검신(檢身)이라 하며,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몸가짐을 예법에 맞게 하는 일이다.

본 문

[율곡의 풀이]

마음을 바르게 하는 정심(正心)은 안을 다스리는 것이요, 몸을 단속하는 검신(檢身)은 밖을 다스리는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 동시에 하는 일이요, 오늘 정심을 하고 내일 검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공부에 안과 밖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두 장으로 나누었다.

[예기(禮記)]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는 삼가지 않음이 없지만 몸을 삼가는 것이 큰일이 된다. 자기 몸은 [나무에

비유하자면] 어버이의 가지이니 감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몸을 삼가지 못하면 이것은 어버이를 상하게 하는 것이요, 그 어버이를 상하게 하는 것은 그 뿌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그 뿌리를 상하게 하면 가지도 따라서 죽는다."

[예기]

군자는 음탕한 소리와 어지러운 미색(美色)을 이목에 머물게 하지 않으며, 음란한 풍악과 사특한 예절을 마음에 접하지 아니하여, 태만하고 간사하고 편벽한 기운을 몸에 두지 않아서, 귀·눈·코·입·지각 등 그 모든 것으로 하여금 바른 것을 따르게 해서 그 의(義)를 행하게 한다.

[예기]

사람에게 예(禮)가 있으면 안전해지고, 예가 없으면 위험해진다.

[논어]

증자(曾子 : 공자의 제자)가 말하였다. "군자가 도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몸을 움직임에 사나움과 거만함을 멀리하고, 안색을 바르게 함에 진실함을 가깝게 하며, 말을 함에 비루하고 이치에 어긋난 것을 멀리한다."

[예기]

시선이 상대의 얼굴보다 위로 올라가면 거만하고, 띠 아래로 내려가면 근심하고 있고, 기울어지면 간사하다.

[논어]

공자는 썰어 놓은 음식이 반듯하지 않으면 먹지 않았으며, 자리가 바르지 않으면 앉지 않았다.

[서경(書經)]

귀·눈의 부림을 당하지 않게 하여 모든 법도를 바르게 하십시오.

[서경]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혹시라도 부지런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소서. 조그마한 행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끝내는 큰 덕에 누가 되니, 아홉 길 산을 만들 때 그 공이 한 삼태기 흙이 모자라 무너집니다.

[율곡의 풀이]

마음은 몸의 주인이 되고 몸은 마음의 그릇이 되는데, 주인이 바르면 그릇도 당연히 바르게 된다. 다만 자연히 바르게 되도록 맡겨 두고 몸을 단속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대학』의 차례에서 수신(修身)이 정심(正心)의 뒤에 있다. 그 힘쓰는 방법은 용모와 시청(視聽)과 언어와 위의(威儀 : 몸가짐)를 한결같게 하늘의 법칙을 따르게 하는 것일 뿐이다. 사람의 형색(形色 : 형체와 용모)은 천성(天性)이니, 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하늘의 법칙이 없는 게 있겠는가? 격물(格物 : 사물에 나아가 연구함)과 치지(致知 : 앎을 이룸)는 이 법칙을 밝히는 것이요, 성의(誠意 : 뜻을 성실하게 함)·정심(正心 : 마음을 바르게 함)·수신(修身 : 몸을 닦음)은 이 법칙을 실천하는 것이니,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야만 형색의 법칙을 행하는 경지에 이른다. 세상사람 중에는 혹 용모와 행동거지를 꾸며 아주 볼만하게 하면서도 안에는 착한 마음을 지키고 보존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참으로 좀도둑에 비할 것이니 말할 가치도 없다. 만일 어떤 자가 타고난 바탕이 욕심이 적어서 물욕의 유인을 받지 않고 마음 편하게 스스로 즐거워서, 다만 안으로 마음을 바르게 하기만 하면 되지 용모와 행동거지에 얽매일 것 없다고 하는 사람 역시 도(道)에는 들어갈 수 없으니, 끝내 세속에서 사람 좋은 사람이 되고 말 뿐이다. 더구나 용모와 행동거지도 장중(莊重)하지 못하고 마음도 게으르다면 방탕한 데로 흘러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다. 이것이 그 마음을 바로 하고서도 또 그 몸을 단속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그러나 몸을 단속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마음의 바름을 얻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진실로 마음을 바르게 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나 바르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니, 어찌 자기의 몸으로 부정한 데서 편안할 리가 있겠는가? 그렇다면 몸을 닦지 않음이야말로 마음이 바르지 않기 때문이다.

해 설

인용한 경전의 내용들은 각기 몸을 삼가서 예법을 지키는 것과 행동과 용모를 바르게 하는 것과 그리고 게으름을 경계한 내용들이다. 모두 몸을 단속하는 말들이다.

여러 경전 특히 『예기』 등에서 예법을 강조한 것은 중국 고대사회에 예가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였기 때문이다. 그 예법의 정신은 조선시대까지 유지되었고, 조선의 예법도 그에 준해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예법이 인간의 몸 곧 행위를 단속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했다. 그 예법을 모르면 인

간이 아닌 오랑캐가 되는 것이며, 그런 예법이 없는 이민족을 야만시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율곡선생은 "마음은 몸의 주인이 되고 몸은 마음의 그릇이 되는데, 주인이 바르면 그릇도 당연히 바르게 된다."고 하여 마음은 바른데 그릇이 바르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잘라 말한다. 몸이 제대로 닦이지 않는 것 곧 행동이 예법에 맞지 않거나 올바르지 못한 것은 거꾸로 말해서 마음이 바르게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런 율곡선생의 논리를 확대 적용하면 앞의 도입에서 필자가 말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은 어쩌면 사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다. 마치 술 취한 아버지가 늦게 퇴근하여 자는 아이들을 모두 깨워서 사온 음식을 강제로 먹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또 아이들에게 억지로 공부하라고 우격다짐으로 강요면서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강변하는 것도 사랑하는 동기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반면 아버지가 출근하거나 퇴근할 때 아이들은 공부 때문에 바빠서 얼굴조차 내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만 공부하기 때문에 다 이해해 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인사를 생략해버리기 일쑤다. 이 또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제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참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비록 형식이라 하더라도 예법은 중요한 것이다.

생각해 볼 문제

1. 사람이라면 누군들 사람 간에 예의를 지키고 싶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유야 어떻든 간에 무례함에 이르는 것도 적지 않게 있는 것 같다. 무례하면 제 몸은 물론이요 부모님과 자기와 밀접하게 관계된 사람들을 망치게 하는 데 이르게 한다.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가족이나 친한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가?

2. 예전의 군자들이 몸가짐과 언행을 몹시 삼가서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던 까닭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그저 바깥으로 그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였을까? 『논어』에 "군자가 몸가짐이 중후하지 않으면 위엄이 없으며, 학문을 하더라도 견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의 내면과 외면의 관계를 가지고 그 까닭을 말해 보세요.

3. 옛 선비들은 예법을 가지고 자기 몸을 반듯하게 하거나 단속하는 도구로 삼았다. 그런데 그 예법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어느 특정한 시대의 예법만 고집하게 되면 남들로부터 비웃음을 사게 된다. 예법이 특정한 문화 또는 문명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율곡 선생이 살았던 시대의 예법으로 몸을 단속한다면 어떨까? 가령 제3장에서 소개한 구용(九容 : 아홉 가지 용모)과 같은 것이 그것인데, 그대로 지키는 것에 문제가 없을까? 아니면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여전히 지켜도 도움이 되는 것일까? 과거의 예법을 대체한 오늘날의 예의 가운데, 내 몸을 단속할 수 있는 것을 찾아 말해 보세요.

인 유 례 즉 안 무 례 즉 위
人有禮則安하나 無禮則危하니라(『예기』).

한자 풀이와 해설

人 : 사람/有 : 소유하다, 있다/禮 : 예법, 예절/則 : 곧, '~하면'을 뜻하는 어조사/安 : 편안하다/無 : 없다/危 : 위태하다, 불안하다

*대구를 이르는 문장이다.

*전체 주어는 人이며 뒤 문장에서는 생략되었다.

*~則~ : ~하면 ~하다

*有禮則安 : '예가 있으면 편안하다'로도 해석된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무례(無禮) : 예의가 없음 또는 예의에서 벗어남

해석

사람에게 예(禮)가 있으면 안전해지고, 예가 없으면 위험해진다.

숙 야 망 혹 불 근　　불 긍 세 행　　종 루 대 덕
夙夜罔或不勤하소서. 不矜細行하면 終累大德이니
위 산 구 인　　공 휴 일 궤
爲山九仞에 功虧一簣하나이다(『서경』).

한자 풀이와 해설

夙 : 일찍/夜 : 밤/罔 : 없다/或 : 혹시/不 : 아니하다/勤 : 부지런하다/矜 : 삼가다, 아끼다/細 : 가늘다, 작다/行 : 가다, 행동/終 : 끝, 마침내/累 : 폐, 누/大 : 크다/德 : 덕/爲 : 하다, 만들다/仞 : 길(길이)/功 : 공, 공로/虧 : 이지러지다/簣 : 삼태기

*전체 문장은 권유하는 글이다.

*勤·矜·累·爲·虧가 동사로 쓰였다.

▶중요한 단어 또는 한자성어

*숙야(夙夜) : 이른 아침과 깊은 밤 또는 밤낮으로

*구인공휴일궤(九仞功虧一簣) : 높이가 구인이 되는 산을 쌓는 데에 최후의 한 삼태기의 흙을 얹지 못하여 완성시키지 못한다는 뜻으로, 오래오래 쌓은 공로가 최후의 한 번 실수나 부족으로 실패하게 됨을 이르는 말

해석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혹시라도 부지런하지 않음이 없도록 하소서. 조그마한 행실에 주의하지 않으면 끝내는 큰 덕에 누가 되니, 아홉 길 산을 만들 때 그 공이 한 삼태기 흙이 모자라 무너집니다.